무주 곤충박물관, 새로 태어난다

쾌적한 관람 환경 · 노후 전시 공간 정비 · 체험형 전시 콘텐츠 확보 리모델링 본격화

국내·외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주 곤충박물관이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된 시설 확충으로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곤충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전시 공간 정비와 활동적인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다양한 체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흥미유발과 재방문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비 13억8천여만 원(도비 5억8천만 원 포함)을 들여 곤충박물관내에 곤충과 관련된 영상물을 확보하고 관람객들에게 이해를 돕는 그래픽 표현 방식을 사용해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올해 4월중 사업에 착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출기법도 첨단 매체 디지털화를 꾀하는 한편 단순한 정보 전달형 연출 방식이 아닌 VR/AR 및 미디어 매체를 통해 기술, 자연, 생태를 연계해 무주 곤충박물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제공된 점이 특징이다.

새롭게 변모될 곤충박물관 전시관은 특수장비와 시설을 활용한 전시로 입체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로비엔 환영의 장을 갖춰 곤충 표본이 전시된 생명나무가 빛을 발하면서 관람객들을 환영하게 된다.

그리고 파노라마 영상과 함께 곤충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를 비롯해 유리속 표본에서 벗어난 각 생명체들의 모습, 작은 생명체로 꾸려진 숲속 놀이터, 거대한 디오라마로 펼쳐진 최초 공룡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새롭게 갖추게 된다.

곤충박물관 조감도.

이로써 박물관 내부의 전시관을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탈피해 관람객들에게 스토리 라인이 느껴지도록 반딧불이 관련 콘텐츠를 더해 지역 특화 및 시대 변화에 맞는 전시관으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관광진흥과 이형재 과장은 "앞으로 곤충박물관은 전시실이 완전 입체화 되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차별화된 학습 및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며 "박물관의 노후화된 전시물과 전시공간 정비, 그리고 교체함으로써 국내 최고 곤충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5월 설립된 무주 곤충박물관은 반딧불이를 중심으로 곤충을 매개로 한 다양한 전시물이 확보돼 있으며, 2천여 종 1만7천여 마리의 전세계 희귀곤충 표본과 유리온실에 200여종의 열대식물이 전시돼 있다.

군은 관람객이 앞으로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

태권도원 상설 시범공연 18일부터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태권도원 대표 콘텐츠인 '태권도 상설 시범공연'의 2022년 작품,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18일부터 공개한다.

태권도원 T1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태권도 격파와 품새, 모듬북과 부채춤 등이 어우러진 태권도 문화 공연으로 약 20분간 펼쳐진다. 올해 공연은 주인공이 수련을 거쳐 자신감을 키우고 고난을 이겨내는 등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구성으로 가족 관람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기 태권도와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 내내 한국 문화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까지 이어지는 태권도원 상설 시범공연은 1월과 2월, 11월과 12월에는 평일 14시에 1회, 주말과 공휴일은 11시와 14시 2회 공연이 진행된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과 주말 모두 2회 공연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매주 월요일 등 태권도원 휴관일에는 미운영된다.

또한, 상설 시범공연 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도전! 으라차차 태권도 기왓장 격파', '태권도 발차기를 재미있게 배우는 미트 팡팡'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져 방문객 누구나 태권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태권도원 상설 시범공연은 4만 5천여 명이 관람했고, 체험 프로그램에는 3천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보이는 2022년 태권도원 상설 시범공연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태권도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올해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안전 준수로 믿고 찾을 수 있는 태권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방역 패스 기준을 적용해 태권도원 입장을 허용할 계획으로 T1 공연장 등 태권도원 주요 시설에 대해 방문객 동선을 고려한 방역 활동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원범 작가 개인전' 개최

24일까지 교동미술관서 '비언어적 Communication전'

이원범 작가 개인전이 열린다.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교동미술관 2관에서 '비언어적 Communication전'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작가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작은 단위로는 자기 내부적 의사소통부터 넓게는 수많은 자기 외부적 대상과 의사 소통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언어적 요소가 상징대상에 대한 자의적인 사회적 언어약속에 기인한 것이라면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약속 이전에 표현되는 동작언어라고 할 수 있다.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으로 속도, 강약, 고저, 음량, 음질에 따라 기쁨, 놀람, 분노, 짜증, 조롱,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와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대화 시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정, 눈길, 손짓, 몸짓, 제스처, 옷차림, 태도 등을 말한다.

시각디자인의 대화하는 방법이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코드다.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은 외모, 자세, 표정, 동작, 시선 등으로 구성되며, 이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상대에게 시각 정보로 전달된다.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시각정보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은 한순간이다. 단 한순간에 각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종합돼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언어적 메시지의 의미와 접근 역시 자극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논버벌의 시각적 메시지의 자극은 소비자에게 강한 자극과 더불어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편, 이 작가는 현재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초조형학회 이사, 현대미술연구소 운영위원, KDC 한국시각디자이너 협회 이사, SOKI 한국일러스트레이션 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마당창극 10주년 기념 '칠우' 출연 배우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전주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 '칠우(七友)(가제)'에 출연할 배우를 전국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당창극 1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심 공연에서 벗어나 전주 이야기를 담은 창작품 '칠우(七友)(가제)'를 제작했다. 한국소설과 전주설화를 접목한 작품으로 한글소설 '규방칠우전'과 전주설화 '남고산 호랑이'를 접목시킨 작품으로, 여기에 전통음악 판소리를 더해 가족단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전주마당창극의 연출은 남인우가 맡게 됐으며, 극단 북새통 대표 및 예술감독 등을 역임한 이력과 국립극단 다수의 작품 연출 및 국립남원민속국악단 '만복사 사랑가', 판소리 '사천가' 연출 등 다수의 공연을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작창은 방수미 명창이 맡았다. 방 명창은 제17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 대통령상 수상 및 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지도단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 작품에도 함께하게 됐다.

작곡은 전주에서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는 젊은 유망주인 강한준 작곡가가 맡았으며, 현재, 다음(多音)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와 국립민속국악원 등 다수 단체에서 작품을 발표한 이력이 있다.

남인우 연출은 "새로운 예술가들과의 협업이 기대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며 코로나로 지친 대중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류 접수 및 오디션은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벽문화관 홈페이지 및 브랜드공연팀(063-280-70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 자문위원회 위촉

완주군이 17일 삼례문화예술촌 신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운영자문위는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임기 종료에 따라 2022~2023년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신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운영자문위는 김성명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고 문화재, 지역문화, 언론, 삼례읍 마을대표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운영자문위는 삼례문화예술촌의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2013년 삼례문화예술촌 개관 이후 운영되었으며, 삼례문화예술촌 및 그림책미술관, 삼례책마을 등 주변일원 운영관리사항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완주=이중복 기자